

보충자료:

# 교회와 장애인 사역

샤론 맥카트 (SHARON McCART)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실천하는 믿음 · 소망 · 사랑

# 목차

서론: 성서적인 근거.....	3
제 1 장: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 연합 헌장.....	5
제 2 장: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장애인들.....	7
제 3 장: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10
결론: 길을 바로 잡고 장벽을 제거하는 일.....	16
후주.....	17
부록: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위한 자료들.....	21
저자 소개.....	22

# 서론: 성서적인 근거

이사야 선지자는 수백년 전에 이런 말을 외쳤는데 세례 요한은 몇 백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오심을 선언하기 위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였다:

한 목소리가 외쳤다: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광야에 대로를 만들어라!

모든 골짜기는 돋우워지고 모든 산들은 낮아질 것이다.

고르지 않은 땅은 평평해 지고 험한 골짜기는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하나님의 입이 명하신 것이다.” 이사야 40:3-5

(일반인을 위한 영어 성경 Common English Bible; CEB)<sup>1</sup>

이 강력하고도 분명한 묘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좁고 바위가 많은 길을 걸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평평하고 순탄한 대로를 걸어 오실 것이라고 선포한다. 산들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돋우워지며 길들이 평평하고 고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방통행로가 아니다. 그리고 이길이 하나님만이 다니시는 길이 아니다. 이 길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시게 하는 길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찾도록 허락한다! 이 대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길이며 우리 가운데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보행 보조기를 가진 사람들이나, 살면서 장애물이나 도로의 장벽을 만난 사람들도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에 서는 여행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길을 살으셨다. 그 분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한 번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셨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들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예수님은 장애인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취급하셨고 그 결과 사람들은 그를 따랐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는 하나님에게 가는 길은 평평하고 곧은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해방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억압받는 이들에게는 자유함을, 다시 말해서 주님의 희년을 선포했기 때문이다.”(누가복음 4:18, CEB).

이사야의 말들은 행동을 위한 초청이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대로를 평평하고 깨끗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주님의 길—그리고 주님께로 가는 길!—을 준비하는 사역은 우리의 일이다. 우리가 그 길을 평평하고 고르게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며 이동에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신의학적, 심리학적, 지적, 감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장벽을 제거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들이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라고 명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 즉 그들의 장애나 차이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평평한 대로를 여행할 것이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교회는 아직도 장애를 가진 이들이 쉽게 접근하거나, 환영받을 수 있기에는 아직도 먼 거리에 있다. 아직도 경사로와 승강기와 휠체어 리프트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짧게 만들어 져야 한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자폐증이나 다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수업 시간에 성공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도 도움이 필요하다. 신학교들은 아직도 미래의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교회 회중들을 장애인에게 더 열린 교회들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지를 가르쳐야 한다. 목사관과 목사 사무실은 이동에 장애가 있는 목회자들이 그들의 재능과 은사를 필요로 하는 교회에 파송받을 수 있도록 접근 가능성을 고려해서 시설을 바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들의 이동성이 가능한 교회로만 파송이 제한되게 된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없다고 말 할 수 없다.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네가 필요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대신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고린도전서 12:21-22, CEB).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처럼 온전해 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길을 곧게 하고 평평하게 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의 일부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부분이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효과적이고 온전하게 응답할 수 없다. 만약 누군가가 주님의 식탁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음식을 맛있게 즐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애인들과 함께, 혹은 그들이 없이도 하나님에게 가는 길을 곧고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함께 일하자. 우리 모든 장벽을 제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당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미래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의 다양성의 조화 속에서 우리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 묵상/토론을 위한 질문들

- 우리 교회는 장애인에게 열린 교회가 되는데 어떤 장벽들이 있는가?
-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평평하고 바르게 만들 수 있을까?
- 장애인들 가운데 어떤 특정 장애를 가진 이들이 특히 더 내 마음에 와 닿는가?
- 어떻게 장애가 있는 교우들과 장애가 없는 교우들이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오라고 초청할 수 있을까?

# 제 1 장: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 연합 헌장

2006년에 국제 연합(UN)은 “장애인 권리 국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을 발표하였다. 그 목적은 “장애인들의 고유한 존엄성을 높이고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근본적인 자유와 모든 인권을 온전하고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보호하며 홍보하는데 있다.”<sup>1</sup> 이 협약은 미국 장애인 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이 보장하는 차별 금지의 권리를 확대하고 있다.<sup>2</sup> 그리고 1993년에 만든 “장애인을 위한 기회 균등 국제 연합 표준 규정(UN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sup>3</sup> 2014년 12월 현재, 151 개 국가가 승인하였고,<sup>4</sup> 자국민들 가운데 장애가 있는 이들이 장애가 없는 이들이 누리는 것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도록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장애인 권리 국제 협약은 미국 행정부가 서명했지만 국회의 비준을 얻지 못했다. 2013년에 국회 비준을 얻기 위해 법안이 상정되었을 때 6 표가 모자라서 3분의 2의 다수표를 확보하지 못하고 비준에 실패하였다.<sup>5</sup> 이 글을 쓸 때까지도 재투표를 위한 계획이 아직 없는 상태이다. 장애인 운동권 사람들은 미국이 세계 장애인 권리를 지지하는 이 중요한 단계에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이것은 어디에 살든지 관계 없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변하는 일에 실패한 것을 뜻하고 동시에 미국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여행하거나 일을 하는 자유를 보호하는 일에 실패한 것을 뜻한다. 더군다나 그것은 미국이 세계에서 지도력을 보여주는 기회를 잃은 것이며 우리가 미국 장애인 법을 시행하면서 배운 것들을 나눌 기회를 잃은 것이다.

우리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사회 헌장은 이렇게 적고 있다:

우리는 교회와 사회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은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과 그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장애와 모든 형태의 장애를 가진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교회와 사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장애인의 권리에 대하여(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연합감리교회 장정(The Book of Disciplin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162.III.1]]<sup>6</sup>

만약 우리가 전세계적인 연합감리교회로서 이 사회 헌장을 지키려면 우리는 이 헌장의 비준과 시행을 촉구함으로써 그 목적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sup>7</sup>

많은 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장애인들을 주변으로 밀어내었고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족에게 의존하거나 구걸하도록 만들었다. 이 헌장에 서명함으로써 국가들은 장애인들의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만들어 가기로 동의하게 되는 것이다: 이동성, 사회 및 경제적 지위, 건강, 교육, 정치적 권력, 기타 등등. 장애가 있는 이들의 삶의 고유한 존엄성과 가치는 공식적으로 인정될 것이다. 문화들은 보다 더 포괄적이고 평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발전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국에서의 미국 장애인 법(ADA)의 시행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런 변화는 시간과 돈이 든다. 그 장벽들을 극복하는 길을 찾는 것이 국제 연합의 감독 위원회의 일이다. 그것은 동시에 전세계에 있는 장애인들의 온전한 접근과 완전한 참여가 지원되고 유지되는 지를 살피는 것이 교회의 일이라는 말도 된다. 이 현장이 있든 없든 우리는 우리 교회를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고 우리 회중들이 장애가 있는 우리 지체들을 환영하게 하는 일을 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 **묵상/토론 질문들**

-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서 장벽이나 접근 불가능한 곳들, 혹은 그곳에 있는 장애인들과의 경험을 기억해 본다. 당신의 경험 중 한 두가지를 나누어 보자,
- 이 현장을 비준한 나라에서 이 현장을 시행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 우리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나라들과 미국에서 비준이 되도록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 제 2 장: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장애인들

장애인 권리 국제 협약(CRPD)을 비준한 나라들 가운데 약 20개국에 라틴 아메리카에 있다. 그것은 그 정부들 안에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지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1</sup> 불행하게도, 부족한 자원과 다른 이유들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장애인들은 종종 자기들 자신의 지역 사회 안에서 접근이 제한된다. 길 모퉁이를 깎아 놓거나,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평평한 도로와 보행로를 만들거나, 모두 참여하는 교육을 하거나 하는 등등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역사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장애인들을 포함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sup>2</sup> 개발된 국가에서라면 방지될 수 있었을 장애들도 치료받지 못한 건강 상태나 출산 당시의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다.<sup>3</sup> 장애 아동들은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종 기관에 수용된다.<sup>4</sup> 오직 20% 내지 30% 장애 아동들만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연안에서 교육을 받고,<sup>5</sup> 학교에 다니는 것이 허용될 정도의 행운아들은 종종 특수 학교에 보내진다.<sup>6</sup>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했지만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직 갈길이 멀다. 많은 나라에서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찾아 내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가족들이 조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도움을 주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무료 휠체어나 다른 돕는 도구들을 제공하기도 한다.<sup>7</sup>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재활(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CBR)<sup>8</sup> 은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사용되는 전략 중의 하나이다. 의료 모델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재활(CBR)은 현재 장애가 있는 어른들과 아동들을 이웃과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한다는 목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향해 일하고 있다.<sup>9</sup> 교회들은 그러한 통합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로 연합하고 있고 최근에 콜롬비아에서 있었던 세계 교회 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의 모임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의 7 개국에서 온 50명의 개인들이 참석한 “장애인의 사회 및 교회 참여에 관한 권리(rights and social-ecclesia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y)”에 관한 회의를 하였는데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된다.<sup>10</sup>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와 연합감리교회가 지원하는 몇 사역들 가운데 장애인들의 권리와 접근성을 늘리는데 성공적인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 중의 하나가 볼리비아의 포괄적인 프로그램이다. 볼리비아는 장애인 권리 국제 협약(CRPD)을 인준한 나라 중의 하나인데, 다른 많은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세상의 다른 많은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은 거의 눈에 띄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교육과 직업과 사회화에 대한 그들의 필요는 거의 충족되지 않는다. 볼리비아는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다섯 나라 중의 하나이고,<sup>11</sup> 필요로 하는 사역의 범위는 재정적으로 거의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점이 연합감리교회가 공헌하여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이다!

오하이오주 케터링시의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Christ United Methodist Church in Kettering, Ohio) 교인들은 볼리비아의 시에라 지방에 있는 산타 크루즈시(Santa Cruz de la Sierra, Bolivia)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월터(Walter)와 수지 헨리(Susie Henry)를 돕고 있는데, 그들은 현재 월터 헨리 교육 센터(Walter Henry Educational Center)라고 명명된 곳에 파송되어있다. 몇 년 전에, 그 교회는 교회와 학교 건축 사역을 도울 선교팀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 시설 공사가 마무리 되자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교

인들은 계속해서 그 센터를 돕고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감리교회 학교들을 도와서 장애인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어 했다.<sup>12</sup>

그 선교팀은 볼리비아 장애인 포용(Embracing Disabilities in Bolivia)이라는 이름으로 조직되었고 2013년과 2014년에 교육 컨퍼런스를 열었다. 전문가들, 교사들, 교육자들, 그리고 통역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컨퍼런스에서 주제 발표들을 하게 한 것 뿐만 아니라 교회는 두 개의 교육용 비디오를 만들어서 볼리비아로 오는 것이 불가능한 교인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 이런 컨퍼런스의 목적은 볼리비아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장애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고 적응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훈련하는 것이었다.<sup>13</sup>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은 이 사역 전체를 볼리비아 사람들에게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들은 현재 동부 볼리비아에서는 받을 수 없는 적절한 교사 훈련을 근처 볼리비아 복음주의 대학교(Bolivian Evangelical University)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그들은 지역 사람들을 훈련해서 경사로를 건설하였고 더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4년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핵심 그룹들이 2015년 볼리비아 장애인 포용 프로그램 계획의 중요 부분을 맡게되었다. 이 그룹에는 볼리비아의 선생님들, 행정가들, 사회 사업을 하는 기관 사역자들, 그리고 장애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선교팀의 교인들은 산타크루즈(Santa Cruz)에 있는 이들과 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해서 지역 사람들이 자기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게 되었다. 교회에서는 돈을 기부하고 노동을 제공하고 교육을 제공해 준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선물은 볼리비아 사람들이 이미 시작된 일들을 계속할 수 있게 돕는 일이다. 월터 헨리 교육 센터는 연합감리교회 구제 위원회(United Methodist Committee on Relief, UMCOR)의 지원을 받는데, 특별 지정 선교헌금(Advance Special) 번호는 #12320A 이고, 산타크루즈 도시 지역 어린이 사역기금(Urban Santa Cruz Children's Ministry)으로 쓰여진다.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의 한 예에 불과하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다른 기관들과 연대해서 장애인 사역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루과이 감리교회(Methodist Church of Uruguay)는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와 연합하여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과 중고등학생들에게 기술 훈련을 하고 직업 기회를 제공해 준다.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Montevideo, Uruguay)에 자리잡은 이 사역은 의류 및 장신구 제조회사(Manufacture of Clothing & Accessories)인데 2013년에서 2015까지 운영하였다. 85년이 된 이 사역은 사회적인 필요를 따라가기 위해서 변화도 경험했다. 백 명의 장애 청소년들이 현재 돌봄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가난한 지역에 사는 십대 아이들과 사회에서나 자기 가정에서나 소외된 이들이다. 이 사역은 각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서 가능성을 보고 각 학생에게 직업 훈련을 시켜주면서 존엄성을 찾아준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들은 이 사역을 확대해서 같은 필요가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사역을 하려고 한다. 이 사역도 특별 지정 선교헌금(Advance #3021601)으로 지원되고 있다.

도미니카 장애 어린이 재단(Fundación Cuidado Infantil Dominicano, FCID)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산티아고(Santiago)에 있는 국제 아동보호소 도미니카 지소이다. 2014년에 그들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에 자기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장애아동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무상원조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혹은 다른 돌보는 이들과) 가족들은 자기들의 권리와 자기 자녀들을 더 잘 돌볼 수 있



는 방법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 이 사역에는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을 교육하여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없애고 그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일과 장애인들을 대변하는 일을 포함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450명의 장애인들이 매일 일상 생활에서 더 독립적이 되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으며 가족들은 재활 기술과 아이들의 발전을 지원하는 기술들을 배운다. 이 사역도 특별 지정 선교헌금(Advance #410215)을 받고 있다.

칠레의 산티아고(Santiago, Chile)에 있는 두 가지 사역도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크레센도 재단(Fundación Crescendo)은 장애가 있는 어른들을 위한 주거지와 공동체를 제공한다. 낮에 하는 활동을 통해서 지적 장애가 있는 어른들을 위한 주거지와 공동체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에 7명의 어른들이 같이 사는 집에서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특별 지정 선교헌금(Advance #14056A)이 이 사역을 지원한다.

산티아고에서는 요한 웨슬리 장애인 학교(John Wesley Schoo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사역이 다중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 이외의 필요한 일들을 지원하고 있다. 교직원으로는 사회 복지사와 정신과 의사와 직업 훈련사와 재활치료가 있다. 정부에서는 그 학교의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 재정을 담당하지만 이러한 교직원들의 월급과 정신과 치료, 애완동물을 사용하는 치료, 가족 훈련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은 하지 않는다. 특별 지정 선교헌금(Advance #12035A)이 이런 비용을 감당한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은 이러한 사역들 및 다른 많은 관련 사역들을 하는 전세계의 장애인 사역들과 협력하여 선교헌금(Mission Giving)을 통한 사역을 한다.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사역들에 특별히 헌금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역번호 (Project #3019230)와 장애인 사역(Disability Programs)이라고 수표 메모란에 기록하든지, <http://www.unitedmethodistwomen.org/donate/umwprojects/disability-programs> 사이트에 가서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들을 돕는 기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가장 최고의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진전은 특별히 라틴 아메리카에 뿌리를 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 미국 내에서의 히스패닉 인구는 5천 4백만명에 이른다. 이것은 미국 전체 인구의 17%에 해당한다.<sup>14</sup> 그리고 이 통계가 대변하는 문화 그룹들 안에는 상당한 숫자의 장애인들이 있다. 여성교회 선교학교에 참석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여성들은 그 문화에 적합한 장애인 의식 훈련과 자료를 담은 정보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교회들은 지역 사회의 지원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지원군으로 장애인이 있는 가정들을 위한 적합한 서비스를 위한 대변인의 역할을 하여 가족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다.<sup>15</sup>

## 묵상/토론을 위한 질문들

- 위에 언급된 사역들이나 나라들 중에 당신의 마음이 끌리는 내용이 있는가? 왜 그런가?
- 당신은 라틴 아메리카에 가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이 거기 있는 동안 배운 것과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
-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돕고 싶은가? 꿈을 크게 꾸어보자! 이러한 사역의 하나를 돕는 일에 참여 하라고 누군가를 초청할 수 있다. 당신의 마음에 헌금을 더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재정 지원을 서슴치 않고 실행해 볼 수 있다.

## 제 3 장 :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은 보통 뉴스에서 우리 군인들이 전투의 결과 시달리는 어떤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신 장애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 전에는 이것을 전투 피로(battle fatigue) 혹은 폭탄 충격(shell shock)이라고 불렀다.<sup>1</sup> 월남전쟁 참전 용사들이 종종 갑자기 전쟁 장면이 떠오르는 현상 (flashbacks)을 가졌고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 결과 간혹 폭력적이 되거나 다른 위험한 행동을 하곤 했다. 병명이 바뀌었지만 증상은 바뀌지 않았다. 전국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센터(National Center for PTSD)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인구의 7% 내지8%의 사람들이 삶의 어느 시점에서는 이 정신 장애의 증상을 보이며 참전 용사들 가운데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비율은 그들이 참전한 전투에 따라 11% 내지 12%에 달한다고 한다.<sup>2</sup>

미국 군인 이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2014년 동안 전세계에서 실제 전투가 일어난 곳은 36지역에서<sup>3</sup> 41개의 갈등이 있었다.<sup>4</sup> 그 숫자에 관계없이 이 모든 전투의 결과 참전용사들뿐만 아니라 전투에 직면하거나 전투와 관련된 폭력에 직면한 민간인들 가운데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는 사람이 생겨났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논리적이다. 이렇게 관련된 성인들뿐만 아니라, 전투 지역에서 자라난 아이들도 종종 이 장애의 증상을 보인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해서 덜 알려진 사실은 그 증상이 전투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도 생긴다는 점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위험에 처한 경우, 그것이 폭력이나 사고나 자연 재해나 서부 아프리카의 이볼라(Ebola) 바이러스 재앙이나 강간이나 학대를 당하거나 사랑하는 이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을 보는 경우에도 같은 장애의 증상을 앓을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예상치 않게 죽거나 떠나거나 혹은 거절의 경험을 하게 되면 어린 아이의 부모들의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존자가 유일한 초점이 되는 경우에 거기서 초래된 감정을 소화해낼 시간이나 기회가 없었다면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슬픔이 주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충격이 주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심지어는 “살아남았다는 죄의식(survivor's guilt)”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누구든지 어떤 나이에서든지 이러한 정신적 장애를 겪을 수 있다.

외상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정상이다. 그러나 아래 언급하는 증상이 한달 이상 가고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상태를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이라고 부른다.<sup>5</sup> 그 증상은 불안과 관련된 장애인데 대개는 주된 외상이나 가해, 정신 질환, 제한된 지원 체계, 술 과음, 혹은 최근의 스트레스나 상실 등과 같은 먼저 있던 특정 위험 요소가 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만약 어떤 개인이 심각한 상처를 입고 오래 끄는 위험과 외상을 경험하고 자기들이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본 그 사건에 강하게 반응하는 경우에 이 증상을 일으킬 위험성이 더 크다.<sup>6</sup>

우울증처럼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도 몸의 화학적 균형에 관련이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싸울 것이냐 도망칠 것이냐(“fight or flight”)를 결정하는 두뇌 부분이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실제 위험이 끝난 이후 상당 기간까지도 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민반응은 보통 두뇌 안에서 이런 반응을 조절하고 감정과 기억 사이의 처리과정을 담당하는 부분과 두뇌의 논리적인 부분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단절을 초래한다.<sup>7</sup> 유전적인 요인과 과거의 경험에 대한 두뇌의 반응 두 가지가 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sup>8</sup> 연구자들은 두

뇌의 신경전달계의 불균형과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sup>9</sup>

한 젊은 군인은 타고가던 자동차가 임시폭약물(improvised explosive device, IED)에 의해서 뒤집히고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는데,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까지 갖게 되었다. 지금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는 밤에는 악몽과 죄책감에 시달린다. 혼자서 길에 차를 몰고 갈 때는 누군가가 길을 향해 달려 가거나 시야에서 사라지면 갑자기 어쩔 줄 모르는 상태가 된다. 그는 쉽게 화를 내고 종종 어두움 속에서 혼자 앉아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는 것이다.

자동차와 모터사이클이 부딪힌 사고의 피해자가 부분 식물인간이 되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다른 차가 교차로에서 조금만 앞으로 나와도 극도로 불안해 하며 사고가 났던 지역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그의 증상 중의 일부이다. 몇 년이 지난 후 그는 마침내 같은 사고 지점을 모터사이클을 타고 지날 수 있었다. 자기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극복하는 일에 아주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이다.

한 소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 “나는 네가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나에게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나는 관심이 없다.” 다른 아이들에게서 받는 거절은 더 상처를 준다. 그리고 전반적인 메시지는 “아무도 네가 관심가지는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 아무도 너에게 신경쓰지 않는다!”하는 것이다. 25년이 지난 후에 그 소녀는(지금은 숙녀인) 자폐증으로 진단받았다. 그녀의 관심은 언제나 집중되어 있고 깊이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폐증 진단은 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집착하는 면이 있고 귀찮게 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지를 설명해 준다. 거절은 상처를 남기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초래하며 그 결과 악몽에 시달리고, 불안해 하고, 자살 충동을 가지게 된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증상들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혼돈스럽고 끔찍한 것이다. 그 증상을 아는 것은 사람들을 이해심이 있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울 수 있다. 그 증상들은 네 개의 범주 중 하나에 들어간다:<sup>10</sup>

## **1. 그 사건(들)을 깨어 있을 때나(플래쉬백, flashbacks) 혹은 잘 때(악몽) 다시 경험한다.**

충격적인 사건을 반복해서 다시 경험하면서 사는 것은 같은 두려움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 가령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숨이 가빠지는 것 등을 초래한다. 그 사람은 그 날 일어났던 일들에 반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말들을 하고 소리지르고 자면서 비명을 지른다. 플래쉬백이나 악몽이나 그것을 겪는 사람에게는 아주 끔찍한 일이다.

## **2. 외상을 기억나게 하는 일들을 피하는 것.**

특정 장소나 사건 혹은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유발하는 외상을 피하는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은 외상과 관련된 사건들을 생각하거나 토론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

### 3. 감정적으로 무감각해 지는 것.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는 사람은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를 수가 있고 사랑하는 이들을 멀리하려고 할 수가 있다. 이런 과정의 일부로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고립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이외의 증상으로는 그 사람이 보통 좋아하던 활동에 대해 관심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외상을 일으킨 사건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등이다.

### 4. 열을 받거나 “뚜껑이 열린” (극도로 흥분하는) 것.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쉽게 놀라거나 계속 긴장해 있거나 화를 폭발시킬 수 있다. 그는 항상 자기를 지키려고 하거나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종종 지속적이고 특별히 알 수 있는 어떤 일로 유발되지 않는다. 계속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일상 생활, 예를 들면 자는 것, 먹는 것, 집중하는 것에 지장을 초래한다. 직업을 찾는대거나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고 그 결과 결혼에 실패하거나 다른 관계에서 깨어짐을 경험할 수 있다.

나이든 아이들이나 십대 아이들은 어른과 비슷한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파괴적이 되거나 남을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자기들이 상처나 죽음을 예방하지 못했다고 하는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들은 복수하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자면서 소변을 못 가리거나, 실어증에 걸리거나, 놀다가 외상을 다시 경험하거나, 자기 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극도로 의존하게되고 한 가지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sup>11</sup>

만약 당신이 이런 증상을 당신의 교회에 다니는 누군가에게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도와야 될 지 확실하지 않을 것이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과 신앙 공동체로부터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기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목사들은 그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도와본 경험이 있는 정신과 의사를 찾거나 재향 군인회 사무실에 연락해 주는 일을 도와줄 수 있다. 군출신이 아닌데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면 행동 치료 전문가나 다른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목회자도 동시에 계속해서 영적인 도움을 제공해서 그 사람이 신앙과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의료적인 증상과 더불어 다른 필요를 느낄 때 도와줄 수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증상을 줄이거나, 보다 나은 질의 삶으로 복귀하는데 치료가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치료, 인지 행동치료, 또는 전통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있다. 어떤 치료사들은 심지어 눈동자 움직임 치료(eye movement therapy, EMDR)를 제공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장기 노출 치료(prolonged exposure therapy)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가족 치료(family therapy)가 추천될 수도 있다.<sup>12</sup>

전문적인 도움 이외에도 뒷받침을 해주는 지원 제도의 격려가 아주 중요하다. 교회 회중들은 이 장애의 심각성 혹은 위험성을 줄여주는 “회복 요인들(resilience factors)”을 제시해 줄 수 있다. 회복 요인들로는 외상적인 사건이 있는 후에 개인이나 집단의 지원의 가능 여부, 효과적인 극복 전략의 사용,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가치관과 일관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sup>13</sup>

사실상, 회중들은 많은 종류의 도움을 줄 수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관해서 교육하는 것이 첫째 단계이다. 이것은 교인들에게 무엇을 예상해야 하는 지를 알게 해 준다. 다른 많은 정신 질환처럼, 그 증상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교육하고 적절한 반응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한 가지 방법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장애에 대해서 전체 교회를 상대로 혹은 특정 집단을 상대로 교육하는 것이다. 네바다 주의 메스키투에 있는 메스키투 연합감리교회(Mesquite United Methodist Church in Mesquite, Nevada)에서는 스티븐 미니스트리(Stephen Ministries) 프로그램에서 다른 참전 용사들을 도운 경력이 있는 참전 용사를 초청해서 그 모임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해서 가르치고 가능한 지역사회의 자원들로 무엇이 있는 지를 배웠다.<sup>14</sup>

교회 교인들은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들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데 연합감리교회에서 일부 지원하고 초교파 정신 건강 협력사역이 지원하는 “약속으로 가는 길(Pathways to Promise)”이라는 프로그램이 가르치는 친구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sup>15</sup> 의사를 만나러 가는 길에 동행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일 특히 서로 즐길 수 있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정상적인 느낌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자전거 타기나 걷기 등의 신체활동을 같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가진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좋은 의사소통 기술이 있어야 한다. 기꺼이 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전국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센터(The National Center for PTSD)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안한다:

- 분명하게 요점을 말할 것.
- 긍정적으로 말할 것.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상황을 도와줄 수 없다.
- 잘 들어 줄 것. 논쟁하거나 끼어들 지 말 것. 자기가 들은 것을 반복해서 자신이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만약 더 알고자 하면 질문을 할 것.
- 상대방의 감정을 단어로 표현하도록 도울 것. “화가 났다고 느끼니까? 아니면 슬프니까? 걱정이 됩니까?”
- 어떻게 도울 수 있는 지 물어볼 것.
- 요청받지 않는한 충고를 주지 말 것.”<sup>16</sup>

개인적인 지원은 서로 이해와 돌봄이 있는 곳인 집단의 지원으로 뒷받침 될 수 있다. 동료간의 지원이 종종 가장 좋은 지원이다.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관련을 맺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교회에서 전투 외상 지원 그룹(combat trauma support groups)을 후원하는데 참가자들이 이 그룹에 와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진단을 받아야 될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존 벡클링(John Beckling) 목사는 월남전 참전 용사인데 그런 지원 그룹을 2013년에 하커 하이츠 연합감리교회(Harker Heights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시작하였다. 그룹 모임을 하기 전에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동역 목사인 태 벡클링(Tae Beckling) 목사가 같이 온 배우자 지원 그룹을 인도한다.<sup>17</sup>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공통된 증상은 분노이다. 그 분노는 많은 것들에 관한 것인데 아무런 경고없이 시작될 수 있다. 분노의 폭발은 위협적이고 다루기 힘들 수 있다.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룹 지도자들, 안내위원, 그리고 다른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지를 배우고 만약 어떤 상황에서든 상황이 위협적이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약속으로 가는 길(Pathways to Promise)”은 교회의 정책과 규정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위기 대처법을 위한 일련의 지침들을 가지고 있다.<sup>18</sup> 만약 분노가 폭력이나 가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면 911에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청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장애가 있는 사람은 모든 가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가족 치료(family therapy)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어려운 상황을 다루는 것을 돕는데 아주 중요하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전문적인 가족 상담치료사들이 있다. 의사나, 신앙 공동체의 간호사나, 혹은 사회 복지 기관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족들을 돕는 기술이 있는 치료사를 찾아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가진 가족들을 돌보지는 않지만, 5백 5십만의 미군 가족들과 친구들 가운데 참전용사의 도우미로 섬긴 적이 있는 사람들 중 상당한 비율의 사람들이 전역 후 스트레스와 외상의 영향에 관해서 다루어야 될 것이다.<sup>19</sup> 교회는 이러한 정신 장애의 영향을 받은 가족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메리 에스더 연합감리교회(Mary Esther United Methodist Church)는 플로리다에 있는데 매 주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는 참전용사의 배우자들 (Spouses of Vet with PTSD)”을 지원하는 모임을 하고 있다.<sup>20</sup>

이러한 정신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도우미의 자기 돌봄도 중요하다. 도우미들이 지치고 병이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증상을 다루는 것이 아주 힘이 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교회 의료사역의 일환으로 자기 관리를 가르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 신앙에 기초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 프로그램 등은 효과적이면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 있는 장소가 된다.<sup>21</sup> 퀼트 짜는 모임(Quilting groups)이나 성경공부 모임도 집에서 벗어나서 좋아하는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희망을 발견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목회자나 신앙 공동체의 간호사<sup>22</sup> 등은 배우자와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삶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가진 삶일 지라도 아직 좋은 것들이 남아 있음을 기억하도록 도울 수 있다. 축복과 기쁨을 기록하는 일지를 간직하는 등의 수단들은 도우미들에게 매일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기록함으로써 균형감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다. 외부 지원자들은 가족들에게 이 상처는 치유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호전되는 것이 더딜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상담자는 기도과 묵상, 독서와 글쓰기 등 자기의 생각을 정돈하고 자신의 힘을 새롭게 하기 위한 조용한 시간을 가질 것을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다.<sup>23</sup>

부모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경험할 때 아이들도 영향을 받는다. 교회는 부부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둘만의 시간을 가지도록 재미있는 “부모 외출을 돕는 아기 봐주기(Parents' Night Out Child-care)”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모든 부모들이 군인들인 자녀들만 따로 모아놓은 군인가족 전용 캠프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도 삶을 바꾸어 놓는 경험이 될 수 있다. 워싱턴 주에 있는 레이저 에프 캠프 리트릿 센터(Lazy F Camp and Retreat Center)는 퍼플 작전 프로그램(Operation Purple Program)과 협력해서 몇 년 동안 그런 캠프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sup>24</sup>

우리는 교회 가족으로서 그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들이 군대복무 중에 외상을 경험했는지, 사고를 당했는지, 외상적인 손상을 입었는지, 다른 삶의 환경에 변화가 있었는지 상관이 없다. 신

양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만약 우리들이 시간과 적절한 치료와 지원만 있으면 그것이 고칠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만이 의료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우리들은 지원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아주 필요한 것이다.

우리 자신의 교회와 공동체에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가진 이들을 돕는 것 이외에도 우리는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을 도울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케냐에 있는 다답 난민 캠프 고문 피해자 센터(The Center for Victims of Torture at the Dadaab Refugee Camp in Kenya)에서는 463,000명의 소말리아(Somali) 난민이 살고 있다. 이 사역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선교헌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일 대 일 접근법을 통해서 진단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신 질환과 외상 증상을 가진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sup>25</sup>

### **묵상/토론을 위한 질문들**

- 당신이나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었는가?
- 당신은 교회 안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참전용사를 알고 있는가?
- 당신은 어떤 식으로 도우려고 노력했는가? 만약 노력한 적이 없다면 무엇이 당신이 자원하는 것을 막고 있는가? 당신은 그 장애를 어떻게 직면하고 제거할 수 있는가?
- 당신 교회에 이런 필요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기꺼이 도우려고 할 사람이 있는가? 당신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라.

# 결론: 길을 바로 잡고 장벽을 제거하는 일

선지자의 목소리는 아직도 광야에서 외치고 있다-“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어떻게 우리는 길을 곧게 하고 장벽을 제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장애가 있든 없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든 없든 어디에 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장애인 권리 국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비준을 위해 일하고 그것이 미국을 포함해서 더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도록 도울 수 있다. 그것은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서비스와 접근을 제공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여선교회에서 지원하거나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특별 지정 선교헌금(Advance)이 지원하고 있는 사역들, 혹은 전세계에서 장애인들에게 도움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는 사역들에 헌금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에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사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 장애인의 접근을 막고 적응하기 힘들게 하는 태도와 인식의 장벽을 제거하고 대변하는 일에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이들을 위해 바르게 만드는데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우리 함께 일해 보자!



# 후주

## 서론: 성서적인 근거

1. 성경 인용은 영어 본문에서는 Common English Bible®, CEB®. Copyright © 2010, 2011 by Common English Bible™을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음. 한국어 번역에서는 그 내용을 사역하였음. 모든 판권은 전세계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CEB”와 “Common English Bible”은 미국 특허청과 상표국에서 등록된 것임. 이 상표를 사용할 때는 허락을 받아야 함.

## 제 1 장: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 연합 헌장

1. 국제 연합 권한 부여 조항(United Nations Enable):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과 발전에 관하여(Development and Human Rights for All), “장애인 권리 헌장(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4년 12월 18일자 접속, <http://www.un.org/disabilities/convention/conventionfull.shtml>.
2. U.S. International Council of Disabilitie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cessed January 13, 2015, <http://usidc.org/template/page.cfm?id=221>.
3. 국제 연합 권한 부여 조항(United Nations Enable):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과 발전에 관하여(Development and Human Rights for All), “장애인을 위한 동등한 기회를 위한 표준 규정(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4년 1월 15일자 접속, <http://www.un.org/disabilities/default.asp?id=26>.
4. 앞의 자료, “최근의 전개된 일들,” 2015년 1월 13일자 접속, <http://www.un.org/disabilities/>.
5. 헤이스 브라운(Hayes Brown), “상원은 물고기 보호 협정은 통과시킬 수 있지만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는 협정은 통과시킬 수 없다,” 싱크 프로그래스(Think Progress), 2014년 4월 11일자, <http://thinkprogress.org/world/2014/04/11/3424367/senate-fish-crpd/>
6. 연합감리교회 장정-2012년판(The Book of Disciplin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2012.) 판권은 연합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 2012. 허락을 받아 사용함.
7. 잭슨 데이(Jackson Day), “장애인 헌장을 비준하라” 총회 사회부(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 2012년 1월 8일자, <http://umc-gbcs.org/faith-in-action/ratify-disability-treaty>.

## 제 2 장: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장애인들

1. 각국의 비준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를 보려면 국제 연합 권한 부여 조항(United Nations Enable), “장애인 권리 헌장 비준에 관한 규정 및 비준 상황(CRPD and Optional Protocol Signatures and Ratifications)” 참조. 2015년 1월 5일 접속, <http://www.un.org/disabilities/documents/maps/enablemap.jpg>.
2. 리치 숄체(Rich Schultze), 저자와의 전화 인터뷰, 2014년 11월 26일.
3. 폴 제프리(Paul Jeffrey), “멕시코에서의 완전 통합을 위한 투쟁: 장애인을 위한 동등한 기회를 위한 운동권의 압박(The Fight for Full Inclusion in Mexico: Activists Push for Equal Opportunities for Those with Disabilities),” **리스판스(response)**, 46호 (2014): 22–28쪽.
4. 국제 장애인 권리 잡지(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 “버려지고 사라진 것: 멕시코에서 장애아동과 장애 어른에 대한 분리와 학대(Abandoned and Disappeared: Mexico’s Segregation and Abuse of Children and Adults with Disabilities),” 2010년 11월 30일, <http://www.disabilityrightsintl.org/work/country-projects/mexico/>.
5. 세계은행: 장애와 발달(The World Bank: Disability & Development), “장애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연안에 있어서의 포괄적인 발달(Disability and Inclusive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 the Carribean),” 2009년 8월 31일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TOPICS/EXTSOCIALPROTECTION/EXTDISABILITY/0,,contentMDK:20286220~menuPK:3554754~pagePK:210058~piPK:210062~theSitePK:282699,00.html>.

6. 폴 제프리(Paul Jeffrey),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들은 더 나은 인권을 위해 애쓰고 있다(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Struggle for Greater Citizenship),” **리스판스(response)**, 47호 (2015): 22-27쪽.
7. 세계 아동 기금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 사무소(UNICEF Regional Office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장애 아동을 포함시키기 위한 정책들(Policies for the Inclus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챌린지즈(challenges), 15호, 2013년 4월, <http://www.unicef.org/lac/Challenges-15-web.pdf>
8. 세계 은행: 장애와 발달(The World Bank: Disability & Development),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재활(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CBR),” 2010년 4월 15일,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TOPICS/EXT-SOCIALPROTECTION/EXTDISABILITY/0,,contentMDK:20192706~menuPK:418196~pagePK:148956~piPK:216618~theSitePK:282699,00.html>.
9. 폴 제프리(Paul Jeffrey), “멕시코에서의 완전 통합을 위한 투쟁: 장애인의 동등한 기회를 위한 운동권의 압박(The Fight for Full Inclusion in Mexico: Activists Push for Equal Opportunities for Those with Disabilities),” **리스판스(response)**, 46호 (2014): 22-28쪽.
10. 세계 교회 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라틴 아메리카에서 보다 포괄적인 사회와 교회를 향하여(Toward Accessible and Inclusive Societies and Churches in Latin America),” 2014년 9월 15일, <http://www.oikoumene.org/en/press-centre/news/towards-accessible-and-inclusive-societies-and-churches-in-latin-america>.
11. 글로벌 파이낸스(Global Finance),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2015년 1월 3일 접속, <https://www.gfmag.com/global-data/economic-data/the-poorest-countries-in-the-world>.
12. 리치 슐체(Rich Schultze), 저자와의 전화 인터뷰, 2014년 11월 26일.
13. 연락처와 발표 및 비디오 등은 볼리비아에서 장애를 받아들이기(Embracing Disability in Bolivia) 사이트에서 볼 수 있음. 2015년 1월 5일자 접속, <http://www.disabilitybolivia.org/>.
14. 질병 통제 및 예방국(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히스패닉 혹은 라티노 인구(Hispanic or Latino Populations),” 2014년 10월 28일 자료, <http://www.cdc.gov/minorityhealth/populations/REMP/hispanic.html>.
15. 루피타 알론소-로돈도(Lupita Alonso-Redondo), 전화 인터뷰는 린 슈웨드버그(Lynn Swedberg)와 하였음. 2015년 1월 6일.

### 제 3 장: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1. 미국 재향군인회(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전국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센터(PTSD: National Center for PTSD), “참전용사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역사: 남북전쟁에서부터 정신과 진단 매뉴얼 5판에 이르기까지(History of PTSD in Veterans: Civil War to DSM-5),” 매튜 제이 프리드만(Matthew J. Friedman), 의학 및 철학박사, 2014년 11월 10일자 자료, <http://www.ptsd.va.gov/public/PTSD-overview/basics/history-of-ptsd-vets.asp>.
2. 앞의 자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전염병학(Epidemiology of PTSD),” 제임스 엘 그래더스(Jaime L. Gradus), 2014년 1월 30일 자료, <http://www.ptsd.va.gov/public/PTSD-overview/basics/how-common-is-ptsd.asp>.
3. 조슈아 에스 골드스타인(Joshua S. Goldstein), “진행 중인 전쟁들(Wars in Progress),”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International Relations), 2014년 7월 30일자, <http://www.internationalrelations.com/wars-in-progress/>.
4. 국제 전략 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무력 충돌 자료(Armed Conflict Database),” 2014년 12월 10일 자료, <http://acd.iiss.org/>.
5. 미국 재향 군인회(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전국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센터(National Center for PTSD), “정신질환 진단 매뉴얼 5판에서 말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기준(DSM-5 Criteria for PTSD),” 2014년 1월 13일 자료, [http://www.ptsd.va.gov/professional/PTSD-overview/dsm5\\_criteria\\_ptsd.asp](http://www.ptsd.va.gov/professional/PTSD-overview/dsm5_criteria_ptsd.asp).

6. 앞의 자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전염병학(Epidemiology of PTSD),” 제이미 엘 그레이더스(Jaime L. Gradus), 2014년 1월 30일 자료, <http://www.ptsd.va.gov/public/PTSD-overview/basics/how-common-is-ptsd.asp>.
7. 존 린치(John Lynch)와 <로린 맥>(Laurin Mack),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회복 프로그램: 치료자 매뉴얼(PTSD Recovery Program: Therapist Manual), 제 1판, (Richmond: Hunter Holmes McGuire VAMC), 13-14., [http://www.mirecc.va.gov/docs/visn6/PTSD\\_Recovery\\_Group\\_Therapist\\_Manual.pdf](http://www.mirecc.va.gov/docs/visn6/PTSD_Recovery_Group_Therapist_Manual.pdf).
8. 전국 정신 건강 협회(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연구 조사 사실 보고서(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Research Fact Sheet),” 2015년 1월 7일자, <http://www.nimh.nih.gov/health/publications/post-traumatic-stress-disorder-research-fact-sheet/index.shtml>.
9. A.D.A.M, Inc.,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뉴욕타임즈: 건강 관리(The New York Times: Health Guide), 2013년 3월 11일자 신문, <http://www.nytimes.com/health/guides/disease/post-traumatic-stress-disorder/causes.html#>.
10. 존 린치(John Lynch)와 로린 맥(Laurin Mack),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회복 프로그램: 치료자 매뉴얼(PTSD Recovery Program: Therapist Manual), 제 1판 (Richmond: Hunter Holmes McGuire VAMC), 8, [http://www.mirecc.va.gov/docs/visn6/PTSD\\_Recovery\\_Group\\_Therapist\\_Manual.pdf](http://www.mirecc.va.gov/docs/visn6/PTSD_Recovery_Group_Therapist_Manual.pdf)
11. 전국 정신 건강 협회(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은 무엇인가(What I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r PTSD),” accessed January 7, 2015, <http://www.nimh.nih.gov/health/publications/post-traumatic-stress-disorder-ptsd/index.shtml>.
12. 미국 재향 군인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전국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센터(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PTSD: National Center for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치료(Treatment of PTSD),” 2014년 2월 27일자, <http://www.ptsd.va.gov/public/treatment/therapy-med/treatment-ptsd.asp>.
13. 전국 정신 건강 협회(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은 무엇인가(What I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r PTSD),” 2015년 1월 7일자, <http://www.nimh.nih.gov/health/publications/post-traumatic-stress-disorder-ptsd/indexs.html>.
14. 메스키투 지역 신문(Mesquite Local News), “스티븐 미니스터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해 강연하는 참견 용사의 강의를 듣다(Stephen Ministers Hear Veteran Speak About PTSD),” 2014년 11월 7일, <http://mesquitelocalnews.com/2014/11/stephen-ministers-hear-veteran-speak-ptsd/>.
15. 약속으로 가는 길(Pathways to Promise), “약속으로 가는 길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들(Resource Materials Available from Pathways to Promise),” 2015년 1월 7일자, <http://www.pathways2promise.org/resources/ptpmatls.htm>.
16. 미국 재향군인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전국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센터(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PTSD: National Center for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는 가족을 돕는 일(Helping a Family Member Who Has PTSD),” 2014년 1월 13일자, <http://www.ptsd.va.gov/public/family/helping-family-member.asp>.
17. 메릴리 콘시다인(Marilyn Considine), “교회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돌봄 모임을 제공한다(Church Offers PTSD Support Group),” 하커 하이츠 헤랄드(Harker Heights Herald) 2014년 5월 30일자, [http://kdhnews.com/harker\\_heights\\_herald/community/church-offers-ptsd-support-group/article\\_bdfb6002-e7a3-11e3-91a1-001a4bcf6878.html](http://kdhnews.com/harker_heights_herald/community/church-offers-ptsd-support-group/article_bdfb6002-e7a3-11e3-91a1-001a4bcf6878.html).
18. 약속으로 가는 길(Pathways to Promise), “위기 상황 행동 지침(What to Do in a Crisis Situation),” 2015년 1월 7일 자료, <http://www.pathways2promise.org/crisis/index.htm>.
19. 총회 고등 교육 사역부(General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Ministry), 연합감리교회(The United Methodist Church), 고등 교육 사역부(Higher Education & Ministry), “110만명의 미국인들이 9/11 테러 이후 군인 가족들을 돌보았다는 사실을 랜드 스타디(Rand Study)가 밝혀 내었다,” 2015년 1월 7일, <http://www.gbhem.org/article/11-million-americans-providing-care-military-members-who-served-9/11-rand-study-finds>.

20. 메리 에스더 연합감리교회: 교회행사표(Mary Esther United Methodist Church: Calendar),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는 참전용사의 배우자 지원 그룹(Spouses of Vet with PTSD Support Group),” 2015년 1월 7일 자, <http://www.maryestherumc.org/event/spouses-of-veterans-with-ptsd-support-group/2015-01-07/>.
21. 수잔 파씨-클라우스(Susan Passi-Klaus), “교회 친구들이 살빼는 비결이 될 수 있는가?” 연합감리교회 공식 온라인 사역(United Methodist Church official online ministry), 2014년 11월 20일, <http://www.umc.org/what-we-believe/can-church-friends-be-a-diet-secret>.
22. 티타 파람(Tita Parham), 인터프리터 온라인(Interpreter OnLine), “신앙 공동체 간호사(Faith Community Nurses)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는 것을 돕는다,” 연합감리교회 공식 온라인 사역(United Methodist Church official online ministry), 2015년 1월 7일자, <http://www.umc.org/news-and-media/faith-community-nurses-help-heal-body-mind-and-soul>.
23. 미국 재향 군인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전국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센터,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는 가족을 돕는 일”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PTSD: National Center for PTSD, “Helping a Family Member Who Has PTSD,”) updated January 3, 2014, <http://www.ptsd.va.gov/public/family/helping-family-member.asp>.
24. “유엠티비: 신학생들이 군자녀들을 돕다(UMTV: Seminarian Supports Military Kids),” 연합감리교회 공식 온라인 사역(The United Methodist Church official online ministry), 2013년 5월 20일자, <http://www.umc.org/news-and-media/umtv-seminarian-supports-military-kids>.
25. 에이미 조 씨 베르소라토(Amy-Jo C. Versolato), “케냐 다답(Dadaab) 난민 캠프에서 고문 희생자를 위한 치유 프로젝트 센터(The Healing Project of the Center for Victims of Torture, in the Dadaab Refugee Camp, Kenya),”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웹사이트, 2013년 8월 26일, <http://www.unitedmethodistwomen.org/donate/stories/restoring-hope,-building-local-capacity>.

# 부록: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위한 자료들

##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들

전국 정신 질환 연합회(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 NAMI)에서 발행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관한 자료  
<http://www.nami.org/Template.cfm?Section=PTSD&template=/ContentManagement/ContentDisplay.cfm&ContentID=122945>

## 전국 정신 건강 협회(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http://www.nimh.nih.gov/health/topics/post-traumatic-stress-disorder-ptsd/index.shtml>

## 미국 참전 용사회(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 일반인들을 위한 자료: <http://www.ptsd.va.gov/index.asp>
- 참전용사에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자료: <http://www.mirecc.va.gov/coaching/services.asp>
- 비디오(Video):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란 무엇인가?(What is PTSD?) [https://www.youtube.com/watch?v=YMC2jt\\_QVEE](https://www.youtube.com/watch?v=YMC2jt_QVEE)

## 신앙에 기반을 둔 자료

### 정신 건강 사역들

- 좋은 개관을 할 수 있게 돕는 한 페이지 자료: [http://www.mentalhealthministries.net/resources/brochures/ptsd/trauma\\_ptsd.pdf](http://www.mentalhealthministries.net/resources/brochures/ptsd/trauma_ptsd.pdf).
- 교육용 모임과 훈련에서 보여줄 수 있는 디비디(DVD): [http://www.mentalhealthministries.net/resources/dvds/healing\\_and\\_hope.html](http://www.mentalhealthministries.net/resources/dvds/healing_and_hope.html) or on Youtube at <https://www.youtube.com/watch?v=yP08jh6LK48> .
- 교회에서 어떻게 지원 모임을 시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내: [http://www.mentalhealthministries.net/resources/brochures/creating\\_caring\\_congregations/ccc\\_brochure.pdf](http://www.mentalhealthministries.net/resources/brochures/creating_caring_congregations/ccc_brochure.pdf)

### 약속으로 가는 길(Pathways to Promise)

-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는 사람을 위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을 수 있는 안내 자료: <http://www.pathways2promise.org/family/referring.htm>
- 교회의 지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자료: <http://www.pathways2promise.org/3-steps.htm>
-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자료: <http://www.pathways2promise.org/crisis/index.htm>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 및 친구들을 위한 사기 진작을 위한 12 단계 프로그램 (Twelve-Step Program Toward Recovery from Moral Injury for Veterans and Their Families and Friends)** <http://brite.edu/wp-content/uploads/2013/07/12Step-Moral-Injury-Meeting-Book.pdf>

# 저자 소개

샤론 맥카트(Sharon McCart)는 연합감리교인이며 장애인을 위한 사역에 열정이 있다. 전직 특수 교육 교사로서 그녀는 장애인의 친구로 알려져 있다. 남가주 연회 장애인 사역 팀(DisAbility Ministries Task Force in the California-Pacific Annual Conference)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 연합감리교회 장애인 사역 위원회(DisAbility Ministries Committe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위원장이기도 하다. 그녀는 페이스북(Facebook)에서 “장애인 사역을 위한 남가주 연회 자료들(Cal-Pac Resources for Ministry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